

‘전주 한복문화창작소’ 문 활짝

한복문화 활성화·한복소비 확대 위해 팝업스토어·한복놀이터·교육 추진 등 거점시설 기대

전주 한복문화창작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된 한복문화창작소 개관식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 한복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3년간 총 13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를 위해 전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당 내 2층과 5층 879㎡(약 265평) 공간에 창작소 공간 조성, 한복문화주간,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등 지역 내 한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전주 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놀이터 공간과 한복제작교육, 한복장비교육 등 실제적인 한복 제작에 필요한 교육 및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한 재봉기기 등이 갖춰졌다. 아울러, 한복 판매를 위한 팝업스토어도 마련돼 한복의 문화적 요소와 산업적 요소를 겸비한 한복문화 거점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전당은 한복문화 활성화 및 한복소비 확대를 위해 한복문화창작소 1층에 팝업스토어를 운영, 소비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한복 온·오프라인 스토어와 스타트업 생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 중이다. 또 2층 한복놀이터 공간은 한복 관련 전시, 공연, 파티, 체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층의 침선방에서는 한복 제작 기술 교육을 진행, 예비 한복인 양성과 더불어 일반인 대상 한복문화 전파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도 지속 추진된다.

김도영 원장은 “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인재를 키우는 인재양성소, 한복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전파소, 한복산업을 이끄는 산업발전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창의창작소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복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과 산업을 구원하기 위해 한복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영 원장은 “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인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 한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복문화창작소 개관식 행사가 개최됐다.

를 키우는 인재양성소, 한복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전파소, 한복산업을 이끄는 산업발전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창의창작소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복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과 산업을 구원하기 위해 한복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영 원장은 “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인재

를 키우는 인재양성소, 한복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전파소, 한복산업을 이끄는 산업발전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창의창작소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복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과 산업을 구원하기 위해 한복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영 원장은 “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인재



정읍시립박물관, 효율적 관리·운영 위한 자문회의 열어

정읍시가 정읍시립박물관의 효율·전문성을 한 층 끌어올리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열었다. 정읍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는 총 10명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9명 위촉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이상길 정읍시의회 운영위원장과 박성원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관 등 신규위원 6명을 포함해 9명을 위

촉했다. 위원장에는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이 선출됐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와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서화전시실 신설과 소장품 구입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문화재 발굴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3.1절 기념 역사 특집 '항거의 땅 군산 만세의 함성이 울리다' 방영

군산시와 SBS가 합작한 3.1절 기념 역사 특집 방송 '항거의 땅, 군산 만세의 함성이 울리다'가 오는 3월 1일 오전 8시 50분 방영된다. 1부는 1900~1919년대 군산의 일상을 주제로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 인 호남평야의 중심에 있는 군산이 일제강점기 속 약탈과 수탈 속에서 고통받는 현실이 그려진다. 2부는 3.1운동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 만세운동을 철저한 사료발굴과 역사검증, 그래픽과 재연, 만세운동의 핵심이었던 영명학교 이두열 교사의 후손 이관(90) 서예가 씨를 직접 만나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다. 다큐멘터리의 제작은 이영도 PD(SBS 스페셜의 다수 기획), 김혜연 작가(KBS 역사저널의 외 다수 기획)가 맡았으며 다큐멘터리의 역사성 검증은 최우석 독립기념관 연구원이 감독했다. 박홍순 문화예술과장은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을 통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친 전북의 강한 항일의지를 대표하는 군산 만세운동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시청자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의 밑거름이 된 시민혁명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전북도 무형문화재 사기장 장동국 공개행사

3월 1~7일 김제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토광요서 진행

김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장동국씨의 공개행사가 3월 1일부터 7일까지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토광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국은 1972년 고려도요에 입문해 광주요, 해강청자연구소, 석촌도에 등에서 도자기기를 배우며 실력을 쌓아갔으며, 특히 전통도자기의 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989년에는 토광도예를 설립하여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우리 전통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회색 또는 회흑색의

태토 위에 정선되니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씌워 환원염에서 구운 조선초기의 도자기 제작기법을 온전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토광 장동국은 이번 공개행사에 앞서 “틀에 매이지 않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분청사이며 세계유일의 상감기법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국은 현재 토광도예연구원장, 국제미술작가협회 김제시 지부장, 중국연변대학교 미술대학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무풍 기절놀이(전통공연) 모습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 '최선'

무주군, 28일까지 신규 회원 모집

무주군이 보유한 전통문화인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을 위한 신규 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기절놀이 보존회원을 모집한 후 전수 교육과 함께 재연을 위한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무풍면에 거주하면서 전통문화 보존·육성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또는 무풍면 충무팀에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旗)절놀이는 무풍면 현내리 앞 뒷담이 행하는 민속놀이로 마을 연례행사로 정월대보름날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절례, 줄다리기로 대미를 장식하면서 순서를 마치면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뒤풀이 곳으로 화합을 다지는 행사다. 율마와 아랫마을 주민들이 농악대의 흥겨

운 가락 속에 마을의 상징인 가를 15명이 들고 나와 서로 짚을 주고 받고 세배를 하며 마을 간 화합을 다지던 민속놀이다. 특히 군은 2008년 무풍현내리기절놀이보존회를 설립해 2009년 정월대보름부터 현재까지 정월대보름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손꼽히는 무주반딧불축제에서 꾸준히 재연되어 오고 있으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기절놀이 재연행사를 계기로 무풍면 현내리(북리, 고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기(旗)절놀이 보존회와 함께 정통 민속놀이로 계승·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안성면 낙화놀이와 함께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에 대한 원형복원을 추진해 조선시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